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용우

상품 대신 예술품을 만들어라

스티브 잡스(Steve Jobs)를 최고의 경영인으로 꼽는 이유는 그가 상품을 잘 파는 재주를 가졌다기보다는, 상품을 예술품으로 둔갑시키는 천재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물론 잡스는 애플의 CEO(최고경영자)다. 그러나 그가 직접 나서서 권하는 제품은 상품 출시에 맞춰 소비자가 줄서서 사야하고 손꼽아 기다려야 하는, 이를테면 거의 예술품이 된 것이다.

아이폰이 출시되었을 때 미국인들은 판매 당일은 물론 며칠 동안 긴 줄을 서서 상품을 사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그만큼 아이폰은 예술이라고 탄복할 정도로 기능이 탁월하였으며, 상품을 능가하여 소비자가 인정하는 기술의 혼이 들어 있었다. 소비자는 고가의 값을 지불하고 상품을 습득하면서도 상품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획득하는 듯 한 기분을 선사한 것이다.

그 후 유사한 스마트폰들이 다수 출시되었지만 아이폰의 신화를 크게 능가하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잡스는 소비자가 아이폰을 가짐으로써 흡사 첨단예술을 소유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 준 것이다.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누리면서 시대를 리드하는 신세대들의 신화에 가담하게 해주는 메신저를 자처했다.

1960년대에 불길처럼 등장한 블루진은 단순히 청바지가 아니라 그 시대를 대변하는 문화였다. 당시 젊은이들은 청바지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아이돌을 걸치고 다녔으며, 오늘날에는 세대를 뛰어 넘는 광범위한 문화적 산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청바지를 입는 소비자는 하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 문화를 입는 것이다. 오늘날 청바지는 싸구려 이미지가 아닌 문화의 값을 주장하기 위하여 고급화, 패션화되고 있으며, 그것을 입는 사람들에게 흡사 청바지문화로의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인식된다.

런던의 테이트갤러리나 파리의 퐁피두센터, 뉴욕 현대미술관에는 연 500만 명의 관객이 몰린다. 이것은 단순히 대도시 문화공간이 누리는 특수가 아니다. 이들 도시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서울의 문화공간들과 그 관객 수를 비교해보면 현실은 너무도 자명해진다. 그들은 나름대로 관객에게 예술성, 천재성을 인정받을 만한 기막힌 공간을 창조하였고, 단순한 전시장이 아닌 사람을 부르는 지독한 매력을 개발한 것이다.

시장경제와 소비중심사회는 시장과 소비자가 그 중심에 있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뿌리는 대중과 대중문화이다. 대중의 속성, 대중문화의 흐름이 시장과 소비를 좌우하는 것이다.

오늘날 대중이 창조해내는 영웅과 아이콘들은 때로는 아이돌을 만들어내며, 때로는 그 많은 상품 중 일부를 독특한 예술품으로 만들어내는 기가 막힌 사례들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우는 비단 상품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문화예술이벤트까지 이에 적용된다.

가령 베니스비엔날레는 다른 비엔날레와는 달리 4일간 프레 오프닝 행사를 한다. 이 기간 중 베니스를 찾는 관계자들은 전 세계에서 줄잡아 3만 여 명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 베니스 시내는 물론 인근의 호텔들은 평소보다 배 이상의 요금을 받는다. 매 2년마다 베니스를 가득 메우는 이 전문가 집단들은 세계 최고의 수상도시 베니스가 갖는 도시의 숭고미에 취하기도 하지만, 베니스비엔날레가 선사하는 독보적인 비엔날레의 질에 취한다. 비엔날레는 이제 베니스만이 창조하고 누리는 최고의 관광혼합형 이벤트로서의 가치가 바로 예술이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초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을 전후하여 광주 일원의 호텔이 초만원을 이룬 적이 있다. 아트페어와 시기가 겹친 탓도 있지만 1500여 명의 손님이 한꺼번에 지구촌에서 몰아닥쳐 방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이는 광주비엔날레 1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의미는 남달랐다.

그렇다고 광주비엔날레가 베니스처럼 비엔날레 특수를 누리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광주의 전시상품이 아닌, 그 무엇을 애써 가꾸는 과정에서 찾아 온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소비사회는 소비자가 시장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 그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발언할 수 있는 상품중심주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상품중심주의란 상품이 광고 이상의 독특한 질과 기능을 가져야 하며, 소비자들의 입소문이 광고를 압도하는 기능중심주의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광고시장에서 업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분야가 소비자들이 결정하여 시장을 리드하는 바로 '입소문'이다.

〈광주비엔날레 상임부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설

여수엑스포 SOC '뒷전' 국제적 망신 될라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과연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을까.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만 놓고 본다면 개최 시 국제적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개막을 불과 1년6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성공 개최를 담보할 주요 기반시설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가 박람회 유치 과정에서 2011년까지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도로·철도·공항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상당수가 예산 미반영으로 구축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7년 박람회 유치 결정 이후 정부가 지원해야할 예산은 7조2201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반영액은 5조3247억원에 불과하다.

내년도 국고 예산도 당초 1조552억 원을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8836억 원만 반영된 상태다. 박람회의 중추도로인 여수산단 진입도로와 전주~광양 간 및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건설은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돼 엑스포 개최 이전 완공은 힘든 실정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여수시내 도로 확충은 자치단체 소관이라며 재정 지원마저 거부하고 있다.

여수로 들어오는 도로망이 막히고 현재 시내 도로도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엑스포 기간 여수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엑스포 개최가 코 앞인데, 정부가 방관한다면 성공 개최는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세계박람회는 '경제올림픽'이라 불릴 정도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못지않게 영향력이 큰 국제행사다. 도로망조차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고 엑스포를 개최한다면 국제적 위상 실추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수는 개최지일 뿐이지 그 대표성은 대한민국이 아닌가. 정부는 이제 여수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엑스포를 위해 '올인'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수단 악용 막아야

광주시가 각종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지방재정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호권 의원이 최근 사무감사에서 시가 지난 3년간 86개 사업에서 169차례의 설계변경을 해 605억 원의 사업비를 증액했다고 밝혔다. 공사비 증액은 전체의 80.2%인 69개 사업에 644억 원에 달한 반면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감액은 14개 사업, 39억 원에 불과했다.

물론 시책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하다 보면 물가가 오르고 건설 공법도 바뀌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이유만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 설계변경이 남발되고 있는 게 문제다.

광주시만 보더라도 86개 사업 중 2차례 이상 설계를 변경한 사업은 전체 사업의 절반에 가까운 41개 사업, 6차례 이상 사업도 5건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9차례나 설계변경이 이뤄진 공사도 있다.

관급공사의 잦은 변경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충분히 따져 '선택과 집중'을 못하고 일단 공사부터 벌여놓고 보는 잘못된 사고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여기에다 일부 시공사들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낙찰가를 낮게 책정하고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늘리는 관행도 한 요인이다.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은 광주시만의 일은 아니다. 대부분의 중앙·지방정부의 관급공사에서 거의 '고질병'이 됐다. 예산은 주민의 땀과 눈물이 들어있는 우리의 세금이다. 이런 돈을 설계변경 등으로 낭비할 수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광주·전남지역 지자체는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와 예산 소요 예측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감독 당국의 철저한 감사와 심의시스템 개선 등으로 설계변경이 혈세 낭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료 칼럼

김재봉

겨울철 안구건조증 예방하려면

겨울철은 차가운 날씨와 습도로 인해서 안구건조증 환자들이 무척이나 고생하는 계절이다. 더군다나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독서나 컴퓨터에 푹 빠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와 연관된 안구 건조증이 많이 생긴다.

안구건조증은 '항상성 눈물'이라 하여 눈을 깜빡일 때 기본적으로 분비되는 눈물의 양이 적어서 발생한다. 또한 건조한 실내공기로 인해 눈물층이 빨리 증발하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오전보다 오후에 그 정도가 심하며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의 경우 렌즈를 끼기조차 힘든 경우도 있다. 안구건조증의 증상은 눈물의 감소 뿐만 아니라 눈물층의 불안정, 눈꺼풀의 염증 등에 의해서도 생길 수도 있다.

안구건조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증상을 완화하거나 어느 정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실내의 습도가 낮거나 먼지가 많은 경우 안구건조증의 증상을 보다 심하게 느낄 수 있다. 가습기를 틀어주거나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이 좋다.

습도를 적당히 유지해 실내를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하고, 컴퓨터와 같은 근거리 작업 후 40~50분마다 휴식을 취하면서 눈물안약을 넣어주거나 멀리 떨어진 물체를 쳐다봐서 눈의 조절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장시간 근거리 작업은 눈의 과도한 조절을 유발해 눈을 피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눈물은 정상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분비가 된다. 야간 작업이나 밤을 새는 경우 눈을 무리하게 사용하게 됨으로써 눈의 피로나 충혈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자동차의 에어컨이나 히터의 바람은 매우 건조하다. 안구건조증이 있는 사람은 바람의 방향을 얼굴 쪽으로 하면 더 건조해지니 피해야 한다.

밤마다 눈에 따뜻한 찜질을 10~20분 정도 해준 후에 세수할 때 순한 아기용 비누나 샴푸를 사용해 속눈썹 뿌리쪽을 깨끗이 씻는 것이 좋다. 따뜻한 찜질은 눈물샘으로 가는 혈액을 증가시켜 눈물 분비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속눈썹 뿌리쪽의 청결은 이 부위에 많은 기름샘이 있는데 기름샘의 염증이나 세균감염이 안구건조증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바람이나 먼지가 심한 날에는 보안경 등을 착용하면 눈에 먼지가 들어가는 것과 눈물의 증발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서 안구건조증의 증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도 안구건조증의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안과에서 검사를 받은 후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은 눈물이 모자라는 만큼 외부에서 눈물과 비슷한 성분의 안약(인공누액)을 점안해 눈의 수분을 보충해 주는 방법이다. 이것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며, 피부가 건조할 때 로션을 발라주듯이 눈에 수분을 공급해 줌으로써 효과가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가장 간편한 치료법이다.

안구건조증이 심해 자주 점안해야 할 경우나 결막이 민감한 경우는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누액을 점안하시는 게 좋다.

겨울철은 안구건조증뿐만이 아니고 낮은 습도와 많은 먼지로 인해 알레르기 결막염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 결막염 환자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춥더라도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자주 시켜주고, 가습기를 사용해 실내의 습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갑자기 눈이 너무 가려워 눈꺼풀이나 결막이 심하게 붓는 경우에는 차가운 냉찜질을 20~30분 정도 해주면 증상이 호전된다. 냉찜질로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깨끗한 식염수나 인공눈물안약, 알레르기 안약을 점안해야 하고, 그래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안과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밝은광주안과 원장〉

기 고

조재윤

지방화 시대, 자체감사기구의 참 역할은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부패지수(CPI)가 2008년 5.6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2009년 5.5점, 2010년 5.4점으로 2년 연속 하락하며, 세계 178개국 중에서 39위에 그쳤다. CPI가 우리 사회의 부패정도를 나타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9.3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한 뉴질랜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선진국들의 부패척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볼 때, 청렴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함을 느낀다.

우리나라가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청렴성이 중요하다. 공무원들의 청렴성이 그 나라의 경제수준과 직결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공무원들이 청렴하지 않고서는 품격 높은 나라가 될 수 없다. 공무원의 청렴성은 품격 높은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에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윤리)이나 회계비리 등을 감시·감독하는 감사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거는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체감사기구의 내부통제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점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자체감사 활동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미흡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내부통제의 내실화 및 공공감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됨으로써 자체감사기구가 한 단계 높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본인도 위 법률에 근거하여 지난달 4일자로 20년간 몸담아 온 감사원을 떠나 광주시 감사관으로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체감사기구는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해야 할까. 우리는 변화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자체감사기구도 이러한 흐름에 예외일 수는 없다. 단순히 공무원들의 잘못을 적발하는 역할에 그친다면 주어진 소명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직원들과 폭넓게 소통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자체감사기구의 역할이나 기능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능동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부통제에 관한 전문 연구조직인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ttee)에서도 조직 관리수준이 높아질수록, 즉 사회가 고도화되고 복잡해 질수록 규정준수나 적발중심보다는 전략적 시스템의 관점을 기반으로 하는 진단 중심의 협력적 조직관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비난해도 한 나라가 바로 서려면 공무원이 바로 서야 한다. 공무원들이 청렴해야만 품격 높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본인도 광주시 감사관의 소임을 맡은 것을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며, 광주시가 계속해서 청렴한 도시로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감사관으로서의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광주시 감사관〉

無等鼓

수능 기원

살다 보면 '이성(logos)'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나곤 한다. 아무리 성공한 부모라도 자식 기르는 일은 제 맘대로 하기 어렵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도 태풍, 지진, 해일 같은 대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하다. 특히 자신의 생로병사(生老病死)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방책이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다.

'이성이 인간이라는 종의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한계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슬픔을 달래주거나 힘겨운 삶 속에서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줄 수는 없다는 얘기다'(카렌 암스트롱의 '신을 위한 변명').

인간은 이럴 때 '신화(mythos)'에 의존해왔다. 이성적이나 역사적으로 믿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된 부처, 예수, 마호메트 같은 영웅들의 신화를 따르며 끝없이 신에게 기도했고, 거기서 답을 구했다.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고 강력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대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육신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 신께 묻고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하려고 노력해온 것이다.

더욱 사소한(?) 것들도 기도의 대상이 돼 왔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소풍 갈 때 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또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빌고 또 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늘도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학부모들의 발길이 사찰이나 성당, 교회 등에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종교가 없는 학부모들도 이런 때는 돌아가신 조상이나, 의지하고픈 누군가에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마음을 전하리라 생각된다. 이역만리 중국 광저우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시안게임에 자녀를 보낸 부모의 마음도 같을 것이다.

이런 기도는 어떨까. "최선을 다 했으니, 이제 하늘의 뜻을 기다립니다. 뜻대로 하소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겸손한 마음이다.

/김주정 여론매체부장 jjnews@

여성들에 인기 '명품 간식' 칼로리 높아 건강 위협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는 소위 '뉴요커식 명품 간식'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같은 간식은 커피 한잔, 케이크 한 조각, 아이스크림 등으로 미국식 커피전문점의 확산과 함께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다이어트와 웰빙 열풍이 불고 있는 요즘, 이 같은 식사는 높은 칼로리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

전문가들은 휘핑크림을 얹은 커피, 티라미수 케이크 등을 매일 먹을 경우 한 달에 4㎏씩 몸무게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습관적으로 먹게 되다 보면 중독성이 생겨 계속 이런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한다. 이런 습관은 결국 심각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노정숙·광주시 서구 농성2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도 환영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